

메타버스

함께 춤추고 게임하는 개표방송, 본 적 있어?

- ‘세계 최초’ KBS 메타버스 개표 방송 제작기

작년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한 ‘메타버스’라는 용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란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선 개표 방송을 준비하던 우리 KBS 선거방송기획단에서는 그 실체가 모호했던 메타버스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가상 현실 비슷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메타버스를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불리는 개표 방송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필연성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뉴미디어 업무를 주로 해왔던 제가 얼떨결에 담당자가 되었고, 그렇게 KBS 개표방송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메타버스 현황과 트렌드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시장에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 실제 편의점을 입점시켜 화제를 모았던 네이버Z의 ‘제페토’, SK텔레콤에서 막 출시해 모임·행사에 특화된 메타버스로 마케팅을 하고 있던 ‘이프랜드’, 게임판 유튜브로 불리며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로블록스’, 심지어 출시한지 10년째가 된 ‘마인크래프트’도 원조 메타버스라 평가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아바타, 가상 모임, 게임 등 뚜렷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던 여러 메타버스들을 보면서 개표 방송에 어느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플랫폼들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바타를 만들어 다양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며 체험하고, 각 종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곳. 메타버스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나 쉽게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참여’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라는 메타버스의 속성에 집중하기

로 했습니다. 특정 메타버스 하나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참여라는 속성과 개표방송을 연계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면 모두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페토’, KBS 본관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제페토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Z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로 글로벌 사용자 2억 명에 달한다는 가장 핫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아바타를 만들어 한강 공원, 학교, 지하철, 테마파크, 편의점 등 현실에 존재하던 다양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였죠. 당연히 저희는 제페토에 아직 존재하지 않던 방송사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선 D-50에 맞춰 KBS 최초로 선보인 ‘함께해요 KBS’ 제페토 월드는 선거 방송을 준비하고 있던 KBS 방송사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1박 2일’ 촬영 장소로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KBS 본관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는 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송사 건물과 스튜디오,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을 다채롭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KBS 건물 외부에 마련된 ‘대선 퀴즈 미로’, ‘KBS 고양이 정원 포토존’, ‘대통령 선거 역사관’, ‘한강 포차 거리’, ‘누구나 야외무대’ 등은 메타버스 참여의 속성을 잘 살리기 위해 기획된 공간이었습니다.



제페토 ‘함께해요 KBS’ 메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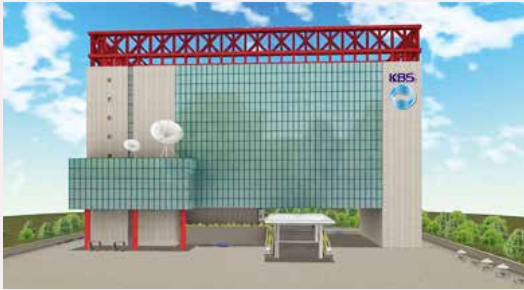
고양이 정원 포토존



대선 퀴즈 미로

메타버스

‘이프랜드’ 세계 최초 KBS 메타버스 개표방송



이프랜드 KBS 메타버스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이프랜드에는 KBS 신관을 똑같이 옮겨다 놓았습니다. 제페토와 달랐던 점은, 많은 인원이 모여 회의,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프랜드 특성을 살려 개표 방송을 제작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TV 개표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메타버스이기에 가능한 콘텐츠들로만 프로그램을 채워보기로 방향성을 잡고 말이죠

우선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해 보기로 했습니다. TV로 보기만 하던 개표 방송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국민참여단을 선정해 이프랜드에 마련된 KBS 가상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제주도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국민들도 초대해 공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들도 초대하여 민주주의의 현장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KBS 메타버스로 모신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KBS 개표 방송을 함께 보기도 하고, 준비한 여러 게임들을 즐기며 TV 개표 방송과는 다른 분위기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BS가 인기 댄스 크루 프라우드먼과 함께 제작한 투표 독려 안무를 메타버스에 모인 국민들이 함께 따라 춘 장



KBS 메타버스 개표방송

메타버스 단체 투표 독려 안무 댄스 타임

면은 단연 백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TV개표방송에서 메타버스 개표 방송현장을 연결했을 때 실시간 중계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메타버스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메타버스 개표 방송이 TV 개표 방송에 노출되자 이프랜드 플랫폼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 과부하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모두 선보이지 못한 아쉬운 상황도 있었지만, '세계 최초'로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KBS 메타버스 개표 방송은 이렇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처음이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개표 방송,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며 끝까지 함께 해준 제작진과 진행자분들, KBS 선거방송기획단 가족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더욱 확장되고 활용 범위가 다양해질 메타버스에서 방송기자 여러분들의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통한 창의적인 콘텐츠가 많이 선보여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



글 KBS 이해준 기획자